

코스피	2596.91	↓ (-2.25)	코스닥	770.98	↓ (-4.50)
금리 (1년)	2.947	↓ (-0.015)	환율 (원/달러)	1351.30	↑ (+1.10)

‘긴축 시대’ 마무리... 소비·투자회복은 시간 걸릴 듯

한은 기준금리 연 3.25%로 인하 3년 2개월 간의 긴축기조 막 내려

전문가들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 대출금리에 인화된 금리 선반영” KDI “내년 중순부터 투자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장기간 부진했던 내수(소비·투자)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간이 필요해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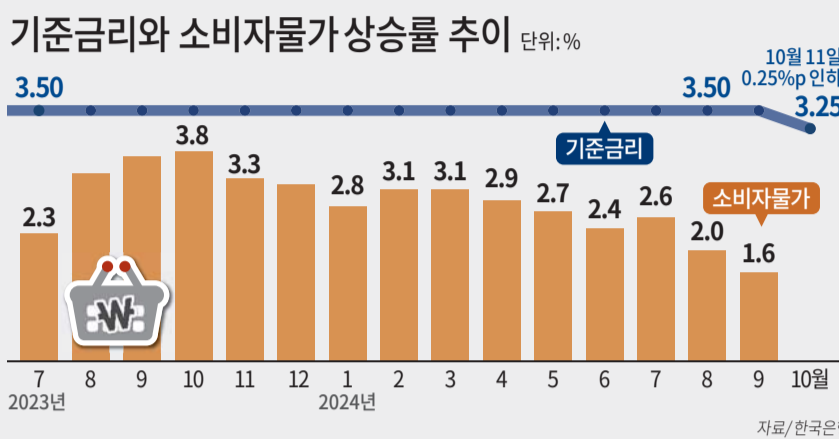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3.5%였던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시작으로 3년 2개월동안 통화 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 금리인하... 소비 진작, 투자 기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2로 한달 전과 비교하면 1.7% 상승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0년 마트 등 소매점의 판매액을 기준(100)으로 두고 판매가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수 지표다.

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올 1분기 -3.8%, 2분기 -0.2%를 기록했다. 건설기성 역시 전기 대비 올 1분기(-4.9%), 2분기(-6.2%) 하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금리인하 효과 6개월 소요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선 고금리로 대출금리가 올라 상환부담이 컸던 차주의 경우 이미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대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낮아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시장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면 시장에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금리는 이미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신호탄인 건 맞지만 이를 기점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8월 3.36%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6%p 내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지난 ▲6월 3.52%부터 ▲7월 3.42% ▲8월 3.36%로 내렸다.

또 금리인하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보통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중순부터 기업 투자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금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이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금리인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에 찬성한 금통위원(5명)은 ‘향후 3개월 이내에는 현 금리수준(연 3.25%)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달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금통위는 물론 내년 1월까지도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에 부정적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한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면서도 “그 인하 속도는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대다수 금통위원의 의견과 같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광화문 광장서 만나는 소설가 한강의 책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관심과 독서를 ‘힘하게’

여기는 ‘텍스트힙’(Text Hip) 트렌드가 맞물려 대한민국 곳곳에 독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교보문고는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량이 수상 발표 이후 910배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누적 판매 순위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순이다. e북 순위도 동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책마당’에서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

/뉴시스

비정규직 임금, 200만원 첫 진입 1~2년 후 정규직 절반 밀돌 수도

통계청, 2024 근로자 임금 발표

월평균 비정규직 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의 추세대로라면 정규직 임금은 올해 기준 400만 원에 근접한다.

통계청은 그간 매년 10월 중하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이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

규직 근로자 구분)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비교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지난 2022년(188만1000원)에 비해 7만6000원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20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50만 원대에 진입한 지 8년 만에 약 5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6만2500원씩 더 받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 8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수규모도 20%로 확대됩니다.

법원이 허용한 공개매수는 적법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만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입니다. 회사 공개매수는 **KB증권 온라인 및 지점방문**과 **미래에셋증권 지점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동물복지 향상 자원마련” vs “유기동물 수 급증 신호탄”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쟁

농식품부 “도입 검토 안해” 선 그어
입법조사처 “개 식용 종식 이행에
상당한 비용소요… 자원마련 방안”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챗GPT에 의해 생성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찬반 시위를 하고 있는 동물들’ 이미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

(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중학생 3명 중 1명, 수학 내신 ‘60점 미만’

과학 ‘A등급’ 학생 가장 적은 과목
‘수학 60점 미만’ 강원 42% 최다
울산 25% 최저, 서울 27% 부산 29%

중학생 3명 중 1명은 수학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인 최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절반 이상이 수학 최하 등급을 맞은 학교도 전체 10곳 중 1곳 이상을 차지하며 ‘수포자’가 작년보다 늘었다. 과학은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가장 적은 과목으로 꼽히며 상위권 학생들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학교 3277개교의 1학기 교과

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을 받아 최하인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중은 35.2%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학생의 교과별 점수를 절대평가로 A·B·C·D·E 등 5단계로 나눠 학생 분포 비율을 공시한다.

지난 1학기 주요 과목 5개 가운데 60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이었다. 이어 ▲영어(29.6%) ▲과학(29.3%) ▲사회(21.9%) ▲국어(18%) 순이었다.

수학 6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50%가 넘는 학교는 374개교로 전체 학교의 11.4%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작년엔

8.2%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3.2%p 확대됐다.

수학 60점 미만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8%로 이른바 ‘수포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0.6%) ▲충남(40.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이 24.9%로 가장 낮았고, ▲서울(27%) ▲부산(29.2%)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영어(30.4%) ▲사회(27.7%) ▲국어(26.3%) ▲수학(25.4%) ▲과학(24.3%) 순이다.

/이현진 기자 lhj@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38% 그쳐

» 1년 ‘비정규직 임금’서 계속

같은 기간 정규직 평균임금은 284만 1000원에서 362만3000원으로 78만 2000원 증가했다. 연평균 상승분은 9만 7750원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166만 6000원까지 벌어진 상태. 올해 격차는 더 커지고, 내년이나 후년쯤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고용 격차(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금뿐 아니라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각

종 사회보험 처우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6000명 증가한 387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 평균 임금은 107만5000원에 그쳤다.

지난 2023년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0%, 94.3%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8.4%, 52.6%에 머물렀다. 상여금 수혜율 및 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88.1%, 85.6% 대 39.4%, 37.2%로 갑절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민 곁에서 따뜻함을 전하는
에너지 파수꾼, 한국가스공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통화정책 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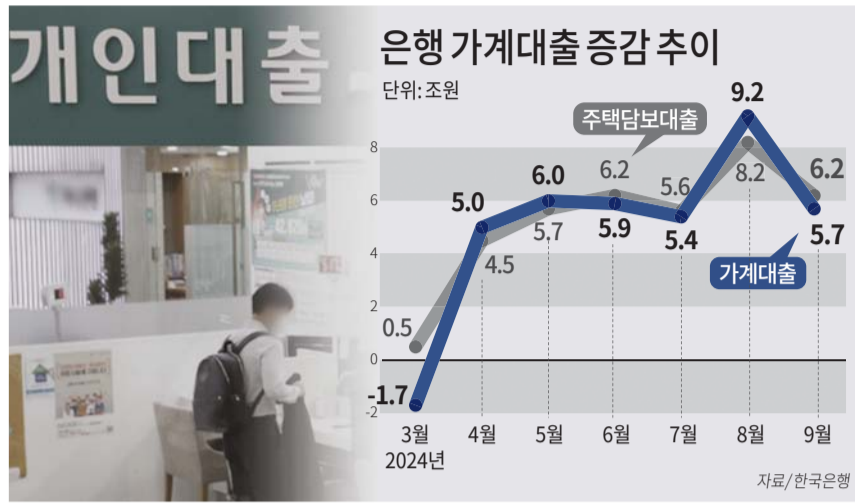
韓, 가계대출 관리 지속... 은행권 금리유지 전망 우세

금리인하에도 당국 규제 영향 주택 가격상승 기대감 여전 "대출금리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은행(한은)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대출금리가 당장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오히려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0.25%p 낮췄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3년2개월 동안 통화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둔화된 경기



와 경제 성장률,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은행들이 쉽

사리 금리인하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유주택자 대출제한 ▲신용대출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불가 선언 등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춰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옥죄기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9월 가계대출 잔액은 8월(9조3000억원) 증가폭 대비 크게 둔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인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000억원)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 8월(8조2000억원)보다 2조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그간 공급이 확대돼 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금리에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 총량관리와 금융당국의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자율 억제를 주문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살펴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日, 엔화약세 이어지나... 이시바 총리, 금리인상 부정적 견해

이시바 총리, 취임직후 스탠스 전환 전문가들 "달러 대비 엔화약세 지속"

지난달 중순 100엔당 940원대에 머무르던 원·엔 환율이 900원대 근처까지 내렸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느릴 것이라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 당초 공약과 달리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엔화가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42원(0.15%) 오른 100엔당 906.77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말 기록한 922.51원보다 15.74원(1.74%) 낮은 수준으로, 지난달 11일 100엔당 947.13원까지 상승했던 원·엔 환율은 원만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102대 일본 총리. 이시바 총리는 앞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지만, 취임 직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뉴시스

이는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었던 미·일 금리차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 시장 기대가 잦아들면서 엔화가 다시금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금리 인상 옹호파' 이시바 시게루가 '금리 인상 중단'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를 꺾고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가 속도를 낼 것이라 기대가 모였다.

하지만 이시바 총재는 이달 초 일본 총리로 정식 취임한 직후 돌연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닛케이 지수가 4.8%나 급락하는 '이시바 쇼크'가 발생했던 만큼,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증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에다 총재가 완화적인 금융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발언들을 뒤집는 이시바 총리의 발언에 엔화 가치는 빠르게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달러·엔 환율은 이날 하루에만 3엔 가까이 올라 장중 한때 달러당 147.25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9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중 상당수는 '빅컷'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9월 FOMC 직후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빅컷에 반대 의견을 낸 '유일한' 위원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1월 FOMC에서 금리를 0.50bp(1bp=0.01%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0%로 확신하고 있다. 이는 9월 FOMC 직후인 지난달 20일 전 0.39%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취임과 함께 긴축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마저 신임 정부가 추가 긴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추가 경기부양책을 계획하는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강화한 것도 엔화 약세 전환 및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 404만 6000원... 금융·보험업 751만원 '1위'

경총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광업 전년동기 대비 6.2% 인상

업종에 따라 월평균 임금 수준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 부진 등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전체 임금총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404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인상률 2.9%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업종별 월평균 임금수준은 금융·보험업이 751.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가스·증기업이 744.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255.7만원으로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았다. 1위인 금융·보험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업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04.6만원이다.

전년도 동기 대비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이었

다. 2023년 상반기 434.1만원에서 2024년 상반기 461만원으로 6.2% 올랐다.

반면 제조업은 428만원에서 427.4만원으로 0.2% 감소했다.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유일하게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 전년 동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4.3%) ▲300인 미만(3.2%)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급이나 고정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특별급여 항목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3% 감소해 전체 임금수준이 0.2% 하락했다.

전 규모 사업체의 2023년도 상반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3.5%·특별급여는 5.7% 감소했다. 경총은 올해 상반기 임금인상을 둔화하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업종이 작년 대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대기업의 특별급여 하락세가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상반기 주요 업종 월평균 임금총액)

업종	월평균 임금총액
금융·보험	751.1
전기·가스·증기	744.5
전문·과학·기술	538
정보통신	522.7
광업	461
제조업	427.4
건설업	419.2
도소매업	406.9
운수업	402.2
교육서비스	374.2
예술·스포츠·여가	326.3
부동산	315.7
보건·사회복지	314.2
숙박음식점	255.7

단위 :만원

/경총

정의선 4년, 글로벌 빅3 도약... 결단력·전동화 전략 성공 비결

(현대차그룹 회장)

혁신 리더십, 세계 성장 견인

고수익 차량 중심, 판매체질 개선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친환경차 주도
수소·로보틱스로 미래 모빌리티 변혁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체제 들어 글로벌 판매 3위 완성차 업체로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회사의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창사 이래 처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 전동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분석해 전통적 사업영역과 신사업 간 합리적 균형을 추구하며 '게임 체인저'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판매 '빅3' 등극... 업계 최고 수익성

지난 2020년 10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위상과 판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처음 연간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이후 올 상반기까지 도요타, 폭스바겐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2020년 635만대에서 지난해 730만대로 100만대 가까이 늘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시장에서도 지난해 '톱4'에 진입했고, 올 상반기역시 친환경차 16만대 등 총 81만여 대를 판매해 순위를 굳게 지켰다. 현대차그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9월 현대차 체코공장(HMMC) 현지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룹은 글로벌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나타내며 외형뿐 아니라 내실 측면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률 10.7%를 기록했다.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9조4599억원 및 14조9059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였다.

주목되는 부분은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수익 차량 중심으로 판매 체질 개선에 성공을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전동화 시장 변화에 발빠른 대응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친환경차 부문 글로벌 선도 브랜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 회장의 인사이트와 과감하고 빠른 결단력이 주효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정 회장 부임 이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패스트 팔로워였던 현대차·기아가 전동화 시대 접어들면서 '퍼스트 무버', '게임 체인저'로 재탄생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했다. 또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자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미국에서 올 상반기 6만1883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현대

차그룹의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한 49만대가량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연말까지는 양사 합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처음 100만대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도 관측된다.

◆수소, 로보틱스 등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 주도

현대차그룹은 인류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측면에서도 톱티어 브랜드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수소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CES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HTWO Grid' 비전을 공개하는 등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기성 폐기물로 수소를 생산하는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HMGMA에 친환경 경 물류체계인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

로보틱스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사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로보틱스랩,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AI 연구소 간 글로벌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로봇 활용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지능형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AAM 분야에서는 차세대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최초 공개했다. S-A2는 슈퍼넬만의 독자 방식인 틸트 로터 추진, 분산전기 추진, 다중화 설계 등이 적용됐으며, 전력 효율성, 안전성, 저소음 등이 장점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AAM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 미 항공우주국(NASA) 등 글로벌 기업, 정부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 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GM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끌며 글로벌 합종연횡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GM은 지난달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차 개발 및 생산, 시장 개척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달 말도 요타자동차의 도요타아키오 회장과 만남을 통해 현대차와 도요타의 '수소차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 만남... 재계 총수들 총출동

(SK그룹 회장) (아트센터 나비 관장)

'철통보안' 속 차녀 최민정 결혼식 광진 워커히, 500여명 하객 참석 이재용·김동관·정기선 등 발걸음

철통 봉쇄 속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33)씨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웨딩홀 반경 100m 앞부터 외부인 출입을 막는 입간판이 섰고 호텔 내부와 지하주차장 곳곳에도 결혼식 하객 외 입장을 막기 위한 보안요원들이 섰다. 참석하는 재계 총수들은 보안 속에서 입회장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호텔 비스타홀에서 민정씨와 중국계 미

국인 케빈 황(34)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결혼식은 초대된 500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 주례는 생략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1시부터 하객을 맞이하고 혼주석에 앉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를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퍼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노 관장의 남동생이자 민정씨의 외삼촌

인 노재현씨 등 일가친척들도 모두 일찌감치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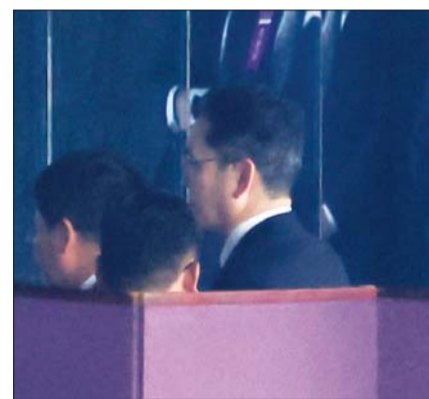
SK 주요 경영진인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도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4대 그룹 회장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장 도착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도 참석했다. 정계 인사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

했다.

이날 민정씨 결혼을 앞두고 워커히호텔은 본식 2~3시간 전부터 일대에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출입을 제한했다. 지하2층 비스타홀로 갈 수 있는 지하3층부터 지상 1층까지 모든 도로와 인도에 출입 제한을 뒀다. 입장객들은 연결된 전용 통로를 통해 명부 확인 후 들어보냈다.

한편 신랑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졸업 후 미 해병대에 입대, 대위까지 진급한 후 2021년부터 예비군으로 전환해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미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영학을 전공한 뒤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이웃주민으로 만나 군 복무 경험을 공유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기자 seoh@

글로벌 기술규제 역대 최대치... 식의약품·농수산물 분야 중심

WTO 회원국 3분기 기술규제 1167건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311건 '소폭 감소'

올해 누적 글로벌 기술규제가 동기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농수산물 분야 기술규제가 많았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TBT)은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누적 건수로는 3176건으로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그 내용을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3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분야 등의 기술규제가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어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물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등 10대 수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 분야(14.5%)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다. 중국은 생활

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 등 43건을 통보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 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며,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중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T, MS와 대한민국 AI 혁신 위한 '자이언트 스텝'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KT그룹, AI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혁신 AICT 컴퍼니 전략 가속

김영섭 대표-사티아 나델라 CEO,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 대한민국 AI-클라우드 기술 및 산업 선도 위해 총수조 원 규모 파트너십

한국형 ChatGPT, Phi3.5, Copilot 공동개발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 AI 저변 확대

KT(대표이사 김영섭)와 마이크로소프트(대표이사 사티아 나델라)는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에서 'KT그룹 미디어·콘텐츠 사업 오리지널'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선보인 저력 있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KT의 성장을 위해 AI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KT가 AICT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할 것"이라고 개방형 파트너십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KT는 AICT 회사로의 혁신 달성을 위해 전사 차원의 AI 대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KT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원까지 전사 차원에서 AI 등 ICT 전문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나아가 KT의 AI 리더십(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KT 임직원들의 AI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AI로 병원 예약 접수까지 척척" KT, 종합병원에 도입한 AI 에이전트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고객센터에 도입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을 경력직을 포함해 올해 최대 1,000명 수준으로 영입하고, 내부 교육 강화와 AI 내재화를 통해 KT의 DNA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선보인 저력 있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KT의 성장을 위해 AI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KT가 AICT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할 것"이라고 개방형 파트너십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KT는 AICT 회사로의 혁신 달성을 위해 전사 차원의 AI 대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KT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원까지 전사 차원에서 AI 등 ICT 전문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나아가 KT의 AI 리더십(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KT 임직원들의 AI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 에이전트(A'cen)'는 고객센터에 도입된 'KT 에이전트(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에이전트(A'cen)'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에이전트(A'cen)'를 도입했다.

KT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TV로 보이는 전 과정에서 AI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선, AI로 드라마 흥행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오리진 콘텐츠 제작의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또 클리프 노트(업스케일링), TV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비주얼 AI를 활용한 화면 크기와 화면 비율을 디자인하는 자동화 AI 기술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데모 AI 기술을 적용해 콘텐츠를 생성형 AI로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거나, 방송이 24시간 끊김이 없이 잘 흘러나오는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KT는 2023년 한 해 동안 skyTV와 KT스튜디오지니를 통해 총 30편의 오리지널 예능과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해 ENA 채널과 '지니 TV'를 통해 공개했다. KT의 미디어 그룹사는 올해 제작한 콘텐츠의 흥행률도 높았다. 이를 위해 KT는 2023년 한 해 동안 skyTV와 KT스튜디오지니를 통해 총 30편의 오리지널 예능과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해 ENA 채널과 '지니 TV'를 통해 공개했다.

KT는 2022년부터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과 함께 AI 석사과정을 마련하고 AI 연구와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재를 직접 육성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AI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3월부터는 AI 계약학과 졸업생이 KT에 처음으로 입사해 AI 개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T는 AI 네이티브 환경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음'을 이용해 지니 TV의 콘텐츠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AI로 콘텐츠의 흥행등급을 예측하여 K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화질을 개선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 미디어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T 김영섭 대표는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해, KT가 꿈꾸는 미래가 KT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韓-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안보·경제협력 강화

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14년 만에 관계 ‘최고수준’ 격상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필리핀과 ‘원전 동맹’ 기틀 마련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필리핀·싱가포르 국민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

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간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생은 어디에?… ‘김건희 vs 이재명’ 소모전 된 국감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집중 질의
2주차에도 양상 지속 될 전망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법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는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

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알았다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차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차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도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

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우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가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동훈, ‘인적쇄신’ 요구하며 연일 대통령실 압박

“국민 우려·걱정 불식 위해 필요”
대화에서 압박 전술로 전략 수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

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

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독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놔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로또 청약’ 뒤흔다... 잠래아·동작구수방사 주목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21일 특공 국민평형 84㎡ 최고 19억870만원 분상제 적용... 10억 안팎 차익 기대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 오늘 특공 전용면적 59㎡... 분양가 9억 안팎 인근 래미안트윈파크, 15억 거래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투시도.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분양 홈페이지

당첨만 되면 수 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 지속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에도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규제나 공공분양 등으로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최고 35층으로 총 2678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589세대다. 주택형별로는 ▲43㎡ 114세대 ▲59㎡ 118세대 ▲74㎡ 35세대 ▲84㎡ 297세대 ▲104㎡ 25

세대 등이다. 입주하는 내년 12월로 예정됐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붙어있고, 2호선과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도보권에 잠실초가 있고, 서울아산병원과 롯데월드몰 등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좋은 입지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최고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는 3.3㎡당 5409만원이다.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 15억 2260만원, 84㎡ 19억870만원이다. 신

천동에서는 입주 17년차인 잠실 파크 리오가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잠실동에서는 2008년에 입주한 잠실엘스가 27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중에서는 지난주 ‘디에이치 대치 에펠루이’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25대 1에 달했다.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로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공공분양에서도 로또청약이 대기 중이다.

LH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수방사 공

공분양주택이 오는 14일 특별공급, 15일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이번 공공분양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면서 서울 중심지인 데다 한강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다. 총 556세대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은 263세대다. 전용면적은 모두 59㎡다. 당초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 중 211가구만 본청약을 신청하면서 다음 주에 52세대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타입과 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억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트윈파크는 59㎡가 지난 8월 15억 1000만원에 거래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분양전망지수는 수도권이 121로 전월 대비 3.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치(100)를 크게 웃돈 데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 6월 121.8포인트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이라면 분양만 하면 대부분 완판될 수 있다는 지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것과 HUG의 분양 보증심사 등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점 때문에 신축 단지에 수요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한화손해보험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정신건강 특약 4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이 여성보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개발된 특약들은 스트레스 관련 대표 질환인 식사(섭식), 수면, 정신장애를 별도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올해 11월 선보일 신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탑재될 예정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식사장애입원직접 치료비 특약은 정신건강질환 중 여성 환자수 비율·치사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질환인 ‘식욕부진’과 ‘폭식증’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보장한다.

이번 4종의 배타적 사용권 추가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에 총 11건을 확보하게 됐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장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판매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불린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11월 출시 예정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여성보험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 1600팀 3200명 참가

삼성생명이 배드민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2024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배드민턴 페스티벌은 삼성생명이 배드민턴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다.

이번 대회는 총 1600팀, 32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급수별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으로 진행됐다. 부자팀, 모녀팀 등 가족끼리 팀을 꾸려 참가하는 ‘패밀리’ 종목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코트 위에서는 삼성생명 소속 선수들이 펼치는 시범경기가 이뤄졌다. 시범경기가 끝난 뒤에는 안세영, 김원호 등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인회가 열렸다.

/김주형 기자 gh471@

고금리에 ‘헤자카드’ 실종... 금리 인하에도 출시 어려워

가맹점수수료 동결 여부 불투명 자금조달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영업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고금리 여파에 ‘헤자카드’ 단종과 무이자할부 축소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7084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동기(6434억4100만원) 대비 10% 증가했다. 상반기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7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프리미엄 카드’가 자리 잡고 있다. 연체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

금 연회비 수익과 함께 소비여력이 넉넉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는 15만~200만원까지로 구성했다.

반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헤자(제값 이상을 하는 가성비 좋은 상품)카드 단종 수순을 밟았다.

카드업계는 고금리 기조 이전인 지난 2021~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성은 낮지만,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헤자카드 중심의 마케팅을 펼쳤다. 올 상반기 단종된 신용카드(282종)는 지난해 단종된 신용카드(458종)의 61.6%에 이른다.

카드업계가 헤자카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달비용’과 ‘가맹점수수료’다. 카드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오르면서

판관비 부담이 커졌다. 가성비 혜택을 내놓기 어려워진 것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당국 주도 아래 가맹점수수료를 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인하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만큼 연회비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세운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때 AA+ 등급의 여전채 금리가 연 5%를 웃돌았다. 기준금리 인하 전 연 2%대로 자금을 조달한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헤자카드 부활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카드사의 조달부담이 낮아질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3.25%로 결

정했다.

카드업계에선 한동안 과거와 같은 헤자카드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연내 여전채 금리가 지난 2022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가맹점수수료 동결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건전성 확보 또한 요구된다. 올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누적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연체율이 함께 올랐다. 대손비용 확대 부담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 조달 부담이 여전히 가성비 카드는 자칫 역마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며 “한동안 헤자카드가 나오더라도 과거와 같은 1만~2만원 수준의 연회비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금융, 괴산에 97번째 어린이집 개원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충청북도 괴산군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은 97번째 어린이집이다.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은 괴산군 대사리 ‘괴산미니복합타운’내에 위치

하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사라져가는 옛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넓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 마을과 같은 풍경이 연상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949.78㎡, 지상 2층 규모로 총 122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보육실 9개를 비롯해 유희실, 중정 놀이터, 자연 놀이터, 옥상 놀이터 등 여러 외부 공간을 조성했다.

강성목 하나금융 부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개원식에 참석한 강성목 하나금융 부회장(맨 뒷줄 왼쪽 네번째)이 송인현 괴산군수(다섯번째)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어린이, 내외빈들과 함께 97번째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일과 가정의 양립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소멸 위기 문제해결에 일조하는 초

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호황기 맞이한 전력기기업계... 생산설비·신기술 확보 박차

HD현대일렉트릭

청주 중저압차단기 공장 신설 예정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대규모 투자
효성중공업 멤피스·창원 공장 증설

최근 데이터센터의 급증,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며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기기 업체들은 생산 규모 확대와 기술력 확보에 적극인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망 연간 투자 규모는 지난 2020년 2350억달러(314조 4300억원)에서 2050년 6360억달러(850조 968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최대 시장인 미국이 전력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미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함께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 지역 송전 케이블 길이는 지난 2020년 77만6000ckm(서킷킬로미터)에서 오는 2030년 90만9000ckm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은 지난 2020년 5.2%에서 지난 4월

누적 기준 17.3%까지 증가했다. 중대형 변압기와 소형 변압기 모두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기기 업체는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1200

억원을 투자해 충북 청주에 중저압차단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지어지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신공장 설립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중저압차단기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천3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 전력기기 핵심 생산기지인 부산사업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1만 3223㎡(약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진공건조 설비(VPD) 2기를 증설해 조립장과 시험실, 용접장 등 전 생산공정을 갖춘 전망이다. 회사 측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매년 확대되고 보고 2025년 9월까지 공장 증설 완료로 목표를 한다.

효성중공업 또한 미국 멤피스와 경남

창원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동시에 증설한다. 1000억원을 투자해 전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공장이 대규모 증설에 나선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업계는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3사는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2548억원을 지출했다. 3사 연구개발비 총액은 전년 2193억원과 비교시 16.1% 증가했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기기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며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전력 수요의 증가로 내년에도 전력기기 3사의 매출액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완성차업계, 임단협 마무리... 실적개선 주력

글로벌 車시장 위기 돌파 한뜻 “노사 협력 통해 경쟁력 확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동차 수요 위축에 따른 위기 돌파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 노사가 힘을 합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가 지난 11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하면서 완성차 5개사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르노코리아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24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0.5% 찬성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전체 조합원 1920명 중 1820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9명이 찬성을 택했다.

그동안 르노코리아노조는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 사측의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출시한 신차 그랑 콜레오스 판매 역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신차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결국 르노코리아 노사는 글로벌 위기 돌파와 실적 안정화를 위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했다. 노사는 기본급 8

만원 인상, 그랑 콜레오스 성공 출시 격려금 등 성과 격려금 300만원, 변동PI 최대 100%(약 200만원) 및 스페셜 인센티브 250만원 등 생산성 격려금, 임금 피크제 개선,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 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500%+18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 역대 최고 조건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 58.93%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일찌감치 교섭을 마무리했다.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8월 말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에 PI(생산 장려금) 250만원 및 PS(이익 분배금) 100만원의 조건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2010년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했다.

한국GM과 기아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후 진행된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며 임단협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한국GM은 지난달 4일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타결 일시금 및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 등을 담은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찬성률은 60.3%였다.

기아는 이달 8일 노조가 2차 잠정합의안을 63.1%의 찬성으로 가결시키며 4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을 이뤘다.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 성과급 500%+1800만원, 무상주 57주 지급 등으로 현대차와 동일한 1차 잠정합의안에 조립 라인 직접 공정 수단 현실화, 출산 휴가 기간 연장 등이 추가됐다.

완성차 5개사가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파업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임단협 갈등에 따른 실적 악화는 피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명소노 “티웨이항공 지분 매수계획 없다”

경영권 확보 관련 입장 표명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지분 매수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을 둘러싸고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최근 공개매수 관련 소식에 대해 “공식 입장은 공개매수나 장내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

며 “아직은 없다’가 아니라 아예 (공개매수) 진행을 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 인수, 이사회 장악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지난 8월 소노인터내셔널(1.87%)과 대명소노시즌(10%)이 티웨이항공 지분을 매수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항공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최근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진출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회사가 더욱 커지기 전에 경영권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900원대의 주가는 한때 3700원대까지 올랐다. 티웨이항공의 1년내 최고 시가는 3990원이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영권을 가진 예림당 측과 지분 차이가 3% 수준인 관계로 언제든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계속해서 나온다. /박대성 기자 iunm@

삼성 “갤럭시 AI로 국가유산 체험해보세요”

갤럭시 Z 폴드6 등 체험 공간 운영

삼성전자가 자사 인공지능(AI) 브랜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대한민국 전통 문화와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서울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창덕궁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옹주, 화순 - 풀빛 원삼에 쓴 연서의 비밀’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조선 영조의 둘째딸인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역 기능으로 내·외국인 회차 구분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참여자는 실시간 통역으로 한국 역사를 이해하고 관련 사진과 내용의 경우 번역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모국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모두 ‘서클 투 서치’(화면에 원을 그리거나 손가락으로 하이라이트



관광객들이 서울 창경궁에서 대한민국 전통 문화와 연계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해 바로 검색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조선 시대 왕실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해 이날까지 창경궁에서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탭 S10 시리즈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기간 중 창경궁을 방문한 고객들은 환경전에 위치한 궁중놀이방에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과 서클 투 서치를 활용한 퀴즈쇼를 경험했다. 퀴즈쇼는 축제 자원활동가 ‘궁이둥이’와 함께 진행됐으며 참여 고객은 궁과 연관된 사진 퀴즈 등의 정답을 서클 투 서치로 확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오션, 단체교섭 타결... 경영정상화 속도

“4분기 생산 안정화 집중”

한화오션 노사가 올해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

13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회사는 11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지난 9일 노사 간 의견 일치를 이룬 임금 인상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생산 공정 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단체교섭 타결은 회사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노사 상생 및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경영 상태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화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화오션은 앞으로 노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아 4분기 생산 안정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통신3사, 5G 포화 속 AI 기반 신사업으로 성장 돌파구 모색

3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 전망

SKT, '에이닷' 개편 4.91% 영업이익 ↑
KT, 전년비 37% 증가 영업이익 4549억
LGU+, B2B AI전략 수익성 개선 목표

통신3사가 신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본업인 통신사업의 성장정체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조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KT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상승하면서 통신사 전체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1조2157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연간 합산 영업이익도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7582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다시 1조원대를 회복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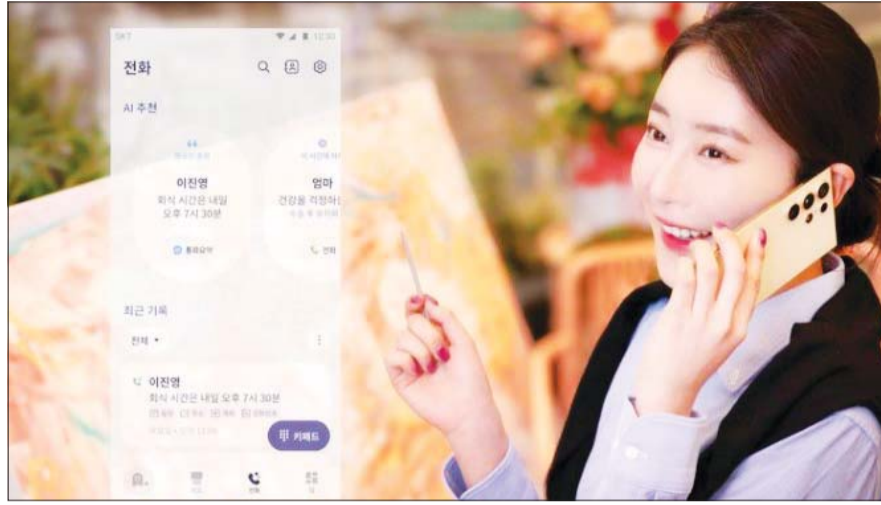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간판. /뉴스시스

4.91% 증가하고 KT가 37.2% 상승하면서 실적 전반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1.1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실적은 통신사업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이 순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 3사는 본업인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통신사별로 보면 가장 큰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KT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개편된 SKT의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모델이 사용하고 있다. /SKT

4549억원이다. 다만 일각에선 KT의 실적에는 임금단체 협상 관련 비용이 앞선 분기에 반영되면서 전체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KT는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일시적 비용을 3분기에 포함했지만 올해는 2분기에 진행됐다. 실제 지난해 임단협 결과가 반영된 KT의 3분기 실적을 보면 1400억원 규모의 지출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KT는 향후 AICT 컴퍼니 비전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KT는 사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적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으로 AI와 클라우드 사업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특화 AI 모델과 서비스와 공공·금융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고 'AI 전환(AX) 전문기업'을 설립해 내년 1분기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MS와의 협력으로 최고의 AI·클라우드 역량을 갖추게 되면 KT는 대한민국의 기업·개인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맞춤형 A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T도 AI 등 비통신 신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성장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SKT는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개편을 통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에이닷의 이용자수는 개편이전 보다 91만명 증가하며 49% 급증하며 모바일 앱 1위를 기록했다. 또 연내 글로벌 PAA(개인형 AI 비서) 출시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생성형 AI인 엑사원을 중심으로 한 B2B(기업 간 거래) 전략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던 전산시스템 관련 비용 지출이 마무리 됨에 따라 통신 특화 서비스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LGU+는 올해도 영업전산시스템 관련무형자산상각비 부담으로 인해 올해까지도 실적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점차 실적 우려가 줄어드는 동시에 장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윤 "생활 잠재력 깨워 인류미래 혁신"

(삼양홀딩스 회장)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킨텍스에서 '뉴 삼양 페스티벌' 개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삼양그룹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 전략을 임직원 및 가족과 공유했다.

삼양그룹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뉴 삼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양그룹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함께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4200명이 참석했다.

김윤 회장은 "100년 전에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대역사로 시작된 삼양의 개척 정신이 다음 10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에 대한 결론과 답은 새로 정립한 기업 소명에 담겨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에 삼양그룹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삼양그룹이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NEW SAMYANG FESTIVAL' 전경. /삼양홀딩스

한번 새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은 새로운 기업 소명인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소개하며 "생활의 잠재력을 깨우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삼양의 다음 100년 역사에도 모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과 임직원 대표들은 삼양그룹의 풍요와 발전을 기원하는 풍등을 띄

웠으며, 임직원들은 각자 소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렸다.

삼양그룹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하자는 다짐을 담아 유명작곡가 켄지가 작사·작곡한 노래 '세상의 빛'과 '위드유(With You), 삼양' 두 곡을 선보였다.

한편 삼양그룹은 1924년 10월 1일 창립 이후 지난 100년간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기업형 농장을 설립해 농촌 근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만주에 불모지를 개간, 산업 농지화해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1955년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당공장을 준공해 설탕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1969년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테르 사업에 진출해 전주에 대단위 공장을 세워 세계 10대 화학섬유회사로 성장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

문혁수 "글로벌 인재 직접 찾는다"

(LG이노텍 대표)

미국서 '이노 커넥트' 진행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미래 사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 확보에 직접 나섰다.

LG이노텍은 문혁수 대표가 최근 김홍식 최고인사책임자(CHO), 노승원 최고기술책임자(CTO)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인재 채용 행사인 '이노 커넥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CEO가 직접 참석한 이번 채용 행사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표 경영 방침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포드대, 조지아공과대, 일리노이주립대, 퍼듀대 등 미국 주요

20여개 대학 박사 및 박사 경력 보유자 32명이 초청됐다. 참석 인재들의 연구 분야는 AI(인공지능), 자율주행, XR(확장현실), 로보틱스 등으로 LG이노텍의 미래 성장 동력과 연관이 깊다.

문 대표와 경영진들은 이 행사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와 연구개발(R&D)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이들과 공유했다. 특히 문 대표는 경영진과 함께 'C레벨과의 대화(Talk With C-Levels)' 세션을 열고 회사의 전략, 기술 로드맵, 전문가 육성 정책 등을 주제로 직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과학,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차별화 기술력과 미래 준비 현황, AI/디지털 트윈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남영 기자

포스코퓨처엠, NCA 양극재 공장 가동... 수주 대응력 강화

포항 NCA 양극재 전용 공장 오픈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

포스코퓨처엠이 포항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포스코퓨처엠은 NCA 양극재 전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초도출하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8%인

하이니켈 제품으로, 니켈 외에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사용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주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23년 1월 삼성SDI와 약 40조원의 공급계약을 맺고 광양공장 일부 라인을 활용해 NCA 양극재를 공급 중이며, 고객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에 건설 중인 NCA 양극재 전용공장을 계획보다 약 3개월 앞

당겨 10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에 연산 3만톤 규모의 첫번째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광양에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5만2500톤의 NCA 양극재 전용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향후 연산 8만2500톤의 NCA 양극재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차현정 기자

삼성SDI, 배터리 인재 영입에 경영진 총출동

영국 런던서 'T&C 포럼' 개최

삼성SDI가 초격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SDI는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 'T&C 포럼(Tech & Career Forum)'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T&C 포럼은 삼성SDI의 주요 경영진들이 직접 나서 삼성SDI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행사다. 지난 8월 미국 보스턴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됐다.

포럼은 최윤호 삼성SDI 사장과 참석

자들 간의 소통 프로그램인 '비전 토크'를 비롯해 연구소장의 키노트 스피치, 개발 주요 부문별 임원들의 테크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입구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을 전시하며 참석자들이 삼성SDI의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테크 세션에서는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삼성SDI의 연구 개발 성과 및 전략, AI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공법 등 미래 기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발 임원들이 직접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증권사, 3분기 실적 '양호'할 듯... '1兆 클럽' 재등장 주목

5대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 33.6% ↑
금투세 논란 등 국내증시 부진에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급증에 감소 상쇄

국내 증시 부진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증권사들이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4분기 실적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증권사의 재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투자·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3033억원으로 전년 동기(9773억원) 대비 33.36% 증가할 전망이다. 순이익도 7449억원에서 1조11억원으로 2562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시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의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1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0% 감소했지만 증권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1405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36.2% 늘면서 국내 주식 거래대금의 감소를 상

쇄했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보면 NH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204억원으로 전년 동기(1184억원)에 비해 86.15% 증가, 개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에셋증권(2771억원), 한국금융투자

(2964억원), 삼성증권(2603억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60.08%, 39.42%, 29.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에 27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키움증권은 올 3분기에 2491억원으로 8.3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부진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상쇄한 데다 채권발행(DCM) 시장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재개 등으로 기업금융(IB)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순상품운용손익 및 기타 손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4분기에도 대형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하락 시기에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WM) 수익이 대폭 증가는 물론 채권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

기에도 부동산PF 및 해외부동산펀드 총당금 및 손상 부담도 축소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취를 감췄던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드는 증권사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부동산PF, 해외부동산손실, 차익결제거래(CFD) 등의 악재로 인해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업체가 전무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대형증권사 중심의 성장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 계좌(IMA) 등은 자본규모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부동산PF 규제 역시 자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B를 통한 상품 공급, 대형사 중심의 해외주식 서비스 등은 고객의 선택을 대형사로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출판株,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열풍'에 들쭉 '수주 호조' 방산株, 추가 상승세 무계

한세에스24홀딩스, 상한가 기록
예림당, 경영권 등 '더블 테마주' 등극
웅진씽크빅 등 출판 관련기업도 급등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증권가에도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도서 판매량 급증뿐만 아니라 출판·전자책 기업의 주가도 초강세를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예스24의 모회사인 한세에스24홀딩스(30.0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컴퍼니케이(29.98%), 예스24(29.81%), 예림당(29.79%)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독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출판 관련주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었으나 '노벨상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신드롬을 맞이한 것이다. 실제로 예림당을 제외하고는 전날이었던 10일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예림당은 최근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2024년 노벨 문학상' 영예는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에게 돌아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는 작가. /뉴시스

관련주로 분류됐으며, 현재는 노벨상 테마주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더블 테마주'로 등극했다.

지난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 주문이 폭주했고, 사이트 마비·물량 부족 등을 발생시켰다.

같은 날 웅진씽크빅(17.85%), 삼성출판사(14.24%), 웅진(7.80%) 등 출판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더불어 출판사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다산네트웍스(14.24%)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서재(23.63%) 등이 크게 올랐다. 밀리의서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입은 모습이다.

'한강 열풍'은 국내를 넘어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출판계를 강타하며 'K문학'의 글로벌 성장력을 주목시키고 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부문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강의 놀라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팝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랠리에도 '꽝꽝'

52주 최저가 '5만8900원' 기록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부진 여파로 '5만전자'로 주가가 떨어지자 10월에도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에만 삼성전자 임원 및 사외이사는 1만1987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난9월에만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을 필두로 회사 주요 경영진들은 자사주 51억원치를 매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10월 들어 6만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후 잠시 멈췄던 자사주 매입 행렬도 지난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노태문 모바일경영(MX) 사업부장(사장)은 자사주 5000주(보통주, 주당 6만원)를 총 3억원에 매입했다. 이번 달에는 김한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자사주 3330주(보통주, 주당 6만200원)를 약 2억466만원에 사들여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박용인 시스템LSI 사업부장(사장) 3000주 ▲최진혁 미주 메모리연구소장(부사장) 3000주 ▲박훈철 호퍼민 SEJC 상무 357주(우선주) 순으로 자사주 매입 움직임을 이어갔다.

임원들이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경영

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영현 부회장(DS)까지 이례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내렸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0일 52주 최저가(5만8900원)를 기록했다. 이는 계속 빠져나가는 외국인 영향이 크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2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약 10조6593억원 매도)를 보였다.

다만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침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목표주가 추가가 하향은 멈춘 분위기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진했던 낸드 수익성도 가격 반등으로 빠르게 정상화 중이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휴전 변수에도 관련 종목 견조한 실적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관련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다. '휴전'이라는 변수는 남아 있지만, 증권가는 중동을 넘어선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 지속과 탄탄한 수주 규모를 이유로 방산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방산 관련 종목들은 지난 10일 일제히 하락하다 하루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산 대장주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10일) 대비 6000원(1.71%) 오른 35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올해 초 주가에 비해 약 174.87% 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1.15%) 등도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숨고르기 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3% ▲현대로템 14.74% ▲LIG넥스원 14.93%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코스피가 2500선에서 지지부진한 것과 비교하면 큰 상승폭을 그린 셈이다. 코스피는 같은 기간 약 0.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장은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가도 방산 관련 종목들이 견조한 실적을 바



10일 증가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보다 전일 대비 3.84%(1만4000원) 하락한 35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탕으로 추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방산기업들의 목표주가를 높이는 추세다.

'방산 대장주'로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NH투자증권은 33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교보증권은 35만8000원에서 43만3000원으로 기존 목표주가를 수정했다. 또한 iM증권은 LIG넥스원의 목표가를 19만6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MLRS)의 폴란드 1차 계약분 인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수주받은 잔고만 30조원에 달해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권, 인니에 국내 첫 SW 상품 11종 상장

(구조화워런트)

"다른 파생상품 위한 마중물 될 것"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거래소(IDX)에 '구조화워런트(SW, structured warrant)' 상품 11종을 상장했다.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SW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구조

화워런트(SW)'는 한국 시장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로 불리는 구조화상품의 한 종류다. 이는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시장에 도입된 첫 파생상품으로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향후 주식선물 및 옵션 등 다른 파생상품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CJ대한통운, 북미 물류센터 첫 삽... 글로벌 진출 탄력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구축 본격화
韓 기업에 수출입 판로역할 기대
29만5390㎡ 부지, 2026년 운영

CJ대한통운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와 함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미 물류센터 구축이 본격화됐다.

양사의 협력 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첨단화·자동화 기술 기반의 'K-물류'가 세계 무대로 확산하는데 탄력을 받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입 판로가 열릴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엘우드(Elwood)에서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 김정환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정성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프라금융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물 10만2775㎡(약 3만1089평), 부지 29만5390㎡(약 8만9355평) 규모로 조성하는 엘우드 물류센터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에서 열린 CJ대한통운·한국해양진흥공사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에서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왼쪽 5번째), 김정환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오른쪽 4번째), 정성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프라금융부장(오른쪽 2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2026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온 제품을 대상으로 보관, 재고관리, 출고 등 물류 전과정이 일괄 수행하며 실시간 창고관리시스템과 보관 제품에 특화된 다양한 자동화 설비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과 해양진흥공사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 6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CJ대한통운 미국법인인 시카고, 뉴욕 등 물류·유통 중심지에 보

유한 총 36만㎡ 규모 3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해양진흥공사는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센터 건설 및 운영은 CJ대한통운이 담당할 예정이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미국 최대 화물철도 기업 BNSF, 유니온퍼시픽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육상, 철도와 연계 시 미국 전역으로 1~2일 내 수배송이 가능하다. 넓은 배송망과 함께 CJ대한통운의 전문적인 운영기술이 더해져 향후 이 센터를 이용하는 화주들은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평소 북미 현지 물류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신뢰도 높은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협력 사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가물류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 패션, 제약, 방산 등 각 산업군에 걸쳐 특화된 CJ대한통운의 물류 전문성과 해양진흥공사의 안정적 지원이

더해져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물류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화주들의 물류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한국의 국가물류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합작 물류센터 구축에 따라 현지 투자, 고용이 이어지면서 한미 경제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미국을 핵심 국가로 설정하고 활발하게 물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약 2만 5000㎡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올해 안 본격 운영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켄자스주 뉴센추리에도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약 2만7000㎡ 규모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케빈 콜먼(Kevin Coleman)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엘우드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해양진흥공사와 추진중인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첨단화·자동화 기반의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영토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햄버거 먹는 반고흐·모나리자 만나요”

크포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

'45주년' 롯데리아 팝업스토어 오픈
버거 시식 후 뇌파 측정 시그림 생성
방문객 '브레인 아트 체험' 경험 선사

미션지 스티커 채우면 기념품 주고
병뚜껑 재활용 킴링제작 참여 가능



롯데리아 팝업스토어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 외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복합문화공간 '성수 플라츠'에 건물 벽이 온통 레드 컬러인 화려한 팝업스토어가 들어섰다. 올해 45주년을 맞은 롯데리아가 선보인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이다.

롯데리아를 대표하는 컬러인 레드로 꾸민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아직 오픈 전 시간임에도 입구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려 사진을 찍고 있었다.

롯데리아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헤리티지에 인공지능(AI)과 예술을 접목한 이색 콘텐츠를 선보인다. 햄버거를 소재로 한 작품 전시부터 버거를 시식한 후 나오는 뇌파를 측정해 AI 그림을 생성해주는 브레인 아트 체험 등 방문객들에게 브랜드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한 경험을 선사한다.

입구에서 미션지를 받고 안으로 들어서면 '뮤지엄'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모나리자' 등 명화를 패러디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1층 '리아 아트존'으로 롯데리아의 본질인 햄버거를 주제로 보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빈센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배경으로 햄버거를 들고 있는 모습, 모나리자가 햄버거를 들고 미소 짓는 모습 등 재치있는 AI 버거 명화와 대형 오브제를 만날 수 있다. 한쪽 공간에는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롯데리아 리미티드 굿즈를 판매한다. 신진 아티스트의 굿즈로 함께 판매하며 해당 수익금은 아티스트 지원에 사용된다.

2층은 '브레인 아트존'이다.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제공되는 새우버거 또는 불고기버거를 먹으면, 기계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를 측정, 해당 수치에 따른 AI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버거를 먹었을 때의 뇌파가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점이 신선하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3층 '45주년 존'은 롯데리아의 45주년을 테마로 롯데리아만의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롯데리아 광고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 형태의 오브제로 만날 수 있다. AI 미러 포토키오스크를 활용해 1979년, 1992년 등 롯데리아의

주요 이벤트 발생 시점의 분위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타임 머신 포토존'도 설치해 타임머신을 탄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팝업 스토어 곳곳에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가 있으며, 입장할 때 받은 미션지에 스티커를 받아 햄버거를 완성하면 그에 따른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 1층 외부에서는 병뚜껑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킴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병뚜껑 네 가지를 골라 안내요원에게 전달하면 고열로 가열해 녹인 뒤 킴링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체험 역시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나면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만 한정적으로 선보이는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통새우살이 가득 들어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통살 가득 새우버거'와 기존 불고기버거에 볶은 김치를 더한 '김치 불고기버거' 2종이다.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거쳐 정식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기부, 中企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진공과 친환경 굴착기 개발 등 4건

인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뭉쳐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새 활로 모색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업전환승인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 굴착기 개발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등의 사업화 ▲수소 추출기 사업화 ▲이산화탄소포집기 사업화 과제에 대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4개 과제에는 총 28개사가 동참한다.

사업전환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 금융, 상법상 특례, 정부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사업전환은 대·중소기업 협력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일괄 승

인하는 제도를. 친환경 굴착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건영테크 등 7개 중소기업은 건설기계의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동력원 굴착기를 대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기업들은 친환경 굴착기의 각 부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대기업은 부품 호환성 확인 및 기술지원, 품질 및 성능테스트 등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친환경 굴착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공급한다.

화인특장 등 중소기업 10개사는 특장차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제어 기술과 IoT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연합해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를 개발·생산할 예정이다. 이미 광주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특장차 제조, 자율주행 제어, AIoT 기술 등을 개발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2주간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

전남·부산·충북·강원 4곳 방문
해외사업 리스크차단 교육 진행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연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는 목표(14일)를 시작으로 부산·청주(16일), 춘천(23일)에서 각각 열린다.

법률지원 간담회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적재산권(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유출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대책 등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

고용부 지방청 10곳, 노무사 '0명'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소멸 위기"

지방청 노무사 임금, 민간비 60%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지원자 없어 김위상 의원 "처우 현실화 필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노무사 채용에 실패한 지청 10곳 모두 영남과 호남 지역으로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구서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포항청 ▲구미청 ▲목포청 ▲군산청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다.

특히, 대구지방청·울산지청·양산지청 3곳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용 적이 없었다.

고용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이나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월 기본급은 256만 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 임금을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무원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급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며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아바 등 수입금지 생과실류 집중 단속

검역본부, 내달 15일까지 특별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생과실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생과실류 유통 성숙기를 맞아, 수입금지 품목의 불법 반입 시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역 강화에 나선다.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이 목적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량화물(LCL) 창고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89명 및 기획수사팀도 운영한다.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명예식물감시원 131명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슈가애플, 구아바 등)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할 예정이다.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당국 통보 또는 관계기관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지품을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제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 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K-종자 육성·수출 활로 모색

16~18일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역대 최대 91개 기업·기관 참여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6~18일 서울컨벤션센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박람회로,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종자기업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인 91곳의 국내·외 종자업체와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 등을 소개하게 된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등이 출품한 58작물 497

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한다. 이를 통해 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해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0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상담도 진행한다. 국내

15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지난 8월26일~9월13일 기간에 진행됐고 7만3000달러(9800만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한국무역공사(Kotra)와 협력해 발굴한 67명의 신규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참가기업 중 12개사는 직접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엔 '제2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국립종자원은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작으로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퀸3호',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을, 농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선정할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 럼피스킨병, 이달에만 4곳서 양성 판정

농식품부, LSD 확산 방지 총력

소 럼피스킨(LSD) 발병 사례가 또 나왔다. 이달 들어서만 불과 열흘 사이 국내 한우농가 4곳의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양양의 한 한우농장(10두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소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지난 10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달에만 벌써 4번째다. 지난 2일 경기 평택, 3일 강원 양양, 4일 강원 고성에 이어 10일 양양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올해 누적으로는 9번째 확진이다.

농식품부는 LSD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감염 소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양양군 및 인접 5개 시·군(속초·인제·홍천·평창·강릉) 소재 소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



지난 9월 20일 럼피스킨 발병이 확인된 충북 충주시 금가면 축사 입구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0월10일 오후 11시부터 10월11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한편, 지난9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이 전북 군산에서 검출됐다. 올가을 전국 가금류 농장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 캠페인 실시

국립공원단, 오늘부터 챌린지 진행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카카오프이엑스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프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

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해 착한탐방 목표를 완료하면 디지털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줍)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프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기념 배지 모습. /국립공원공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을 오는 16일부터 2만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착한탐방 인증 활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산행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현 기자 kdh@

"베트남어로 산재 상담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시범 운영후 확대 검토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 같은 기간 7581건에서 9543건으로 25.9% 증가했다. 국내 근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근로자 순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해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된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베트남어 상담서비스 전담번호로 전화해 산재요양 및 보상 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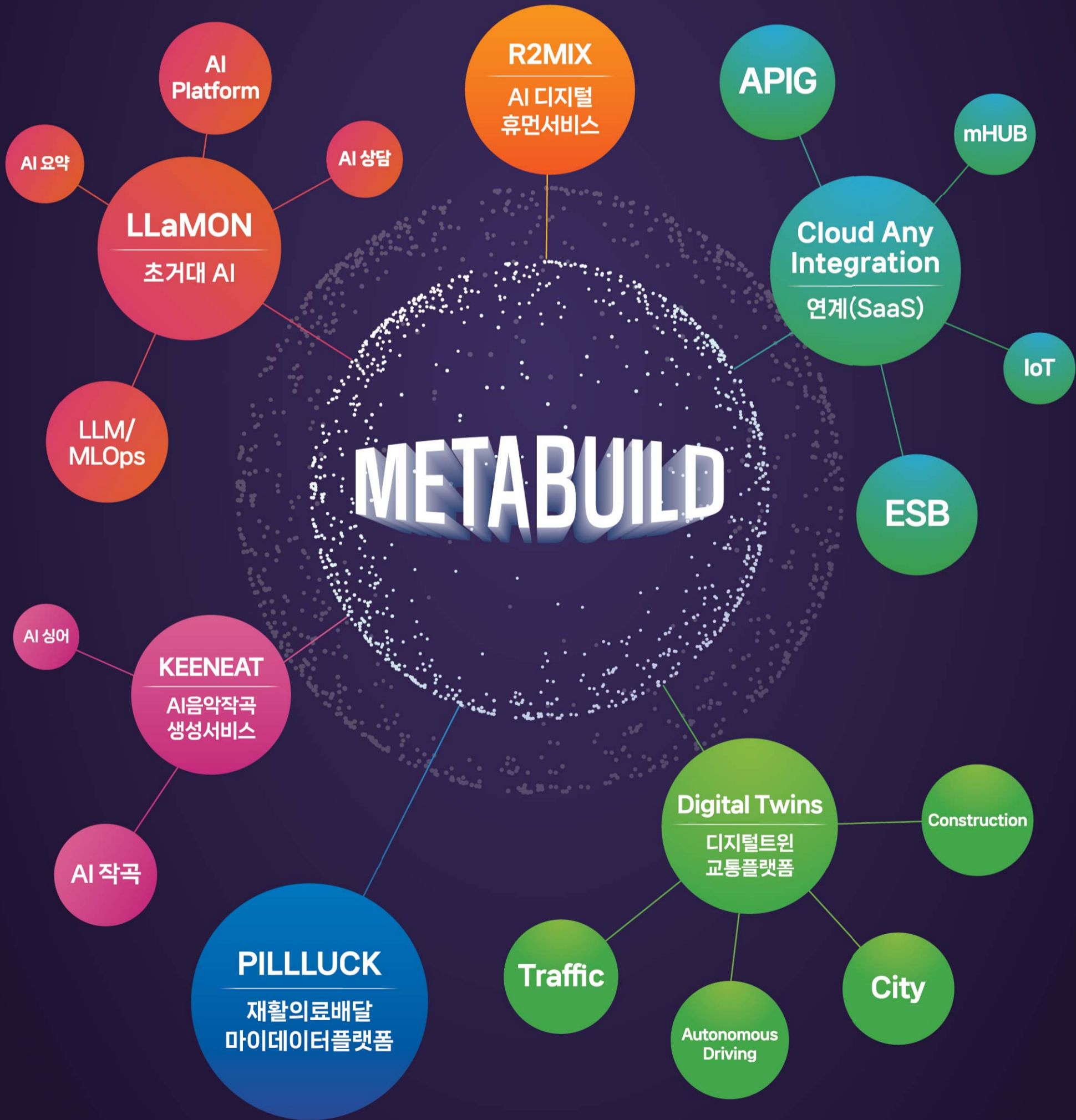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세종=김대현 기자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여수국가산단 등 지역 제조업체 4분기 경기 전망 ‘부정적’

여수상공회의소, 186개社 대상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70.7’ 中·중동발 공급 과잉 등 영향



중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멋진 야경. /여수시청

석유화학 산업이 주축인 여수국가산단 등 여수 지역 제조업체의 4분기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지역 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BSI) 결과 ‘7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률 40.3%)

경기 체감지수 기준값인 100보다 낮은 ‘70.7’로 조사된 것은 기업들이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여수산단의 주력인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발 공급 과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발 글로벌 공급량 확대도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의 범용 제품군의 가격 경쟁력(경쟁국 대비 높은 원가구조) 약세와 낮은 제품 스프레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 분기와 같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판단됐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대규모 물량 유입,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 기대 이하의 중국 수요 회복력으로 공급은 넘치지만, 석유화학제품을 수용할 수요시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 때문에 기업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상의는 지난 7월 이후부터 유가는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배럴당 80달러 급락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수요시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품 스프레드 상의 BEP(손익분기점)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인 t당 300달러 수준 아래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말로 이어지는 4분기도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중국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구조로 여전히 ‘부정적’ 관측이 나오면서 석화 기초·

범용 제품 중심의 업황 부진이 고착화될 전망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현금 창출력 감소에 따른 투자 여력 감소, 자산매각 검토, 생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범용 제품군의 비중을 낮추는 등 지구책 마련에 나서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부진, 공급과잉 현상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며 체감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부진 지속에 일반제조 업종 경우도 기업 투자 심리 위축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약화, 관광 수요 약화, 계절적 성수기 종료 등의 영향으로 역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수 소비 위축(33.0%), 원자재가·유가·환율 불안정(31.3%), 대외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둔화(18.8%) 순으로 꼽았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 농번기 맞아 일손돕기 본격화

하동군이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손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동군은 국가 기반이 되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영농 인력 절감을 위해 농업의 기계화, 병해충 방제 농약 공동 살포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상으로 직접 영농이 어려운 농가, 장애 농가, 수작업이 많은 영세 농가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농가가 많아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인력 수요가 많고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부대, 민간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을 배치 및 지원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역사·문화 담은 디자인 찾는다

경주시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경주만의 디자인을 찾는다.

시는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2024 경주시 경주다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 디자인이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광주시 ‘우리최광 김치파티’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광주김치축제를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시청 광장에서 연다.

‘우리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한 광주김치축제는 ▲천인의 밥상 ▲광주김치 스태프 푸드쇼 ▲우주최광(光) 김치체험 ▲김장 오락실 ▲글로벌 김치라운지 ▲광주김치 팝업스토어 ▲김치판매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진도군 18일부터 3일간 ‘명량대첩축제’

2024 명량대첩축제가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3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진도 녹진무대를 주무대로 하여, 명량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축제는 첫날,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해남과 진도 주민들이 깃발을 들고 진도대교를 건너 출정식에 참여하는 출정 퍼레이드에 이은 개막식과 해상전투 재현이 이어진다.

/진도(전남)=양수영 기자

경남도,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0곳’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영호남 ‘한뿔’

전국 36곳 중 경남엔 한 곳도 없어 올해 예산 40% ↓... 내년도 같아

전국 36곳에 운영 중인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가 경남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회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사진)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버스·열차 예매, 병원 예약,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가 전국 36곳에서 운영중으로 경남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는 서울 4곳, 경기 6곳, 경북·전남 3곳,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제주는 각 2곳, 울산·세종·강원·충남은 각 1곳이 구성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며, 2023년 배움터를 이용한 교육생은 99만 6439명으로 약 10만명에 달하는 등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설교육시설로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22년 682억원,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279억원으로 40% 급감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올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디지털 교육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거점센터는 경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 노년층이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성명서

전북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공동성명서에 전남 홍준표 대구시장 서명하면서 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성명서가 완성됐다.

이로써 전북과 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대구까지 1차 후보지 중 영호남 지역 유일의 후보지인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동의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다.

홍준표 시장을 만난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지가 100% 유휴 국유지로 예산 절감이 가능해 정부 긴급재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달빛철도에 이어 영호남 상생발전의 기폭제로 동서



10일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한 최경식 남원시장(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 부지선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남원시는 경찰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자연환경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달빛철도 경유지 중심 지역”이라며 동의했다.

/남원(전북)=양수영 기자

신안군, 新양식장으로 김 수급 안정화 도모

전남 1655ha 중 380ha 확보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선제적으로 신규양식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남 1655ha 중 380ha를 확보했다.

이번 신규 개발된 김양식 면허는 11월 중 면허 예정으로 올해 10월~11월에 생산되는 잇바디돌김의 생산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김 수급 안정화에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양식업권의 대부분은 어촌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고 있어 신규 어업자(귀어·청년 등)에 대해서 양식업 참여 기회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신안군수협)과 협의하여 지역별로 새로 유입된 어업인 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광주·전남도에 장기 방치 주유소 늘어

산업부가 대책 없이 방치 ‘지적’

주변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홍물 휴·폐업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도 최근 5년간 휴·폐업이 반복되면서 장기 방치 주유소에 대한 철거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제공한 산업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는 전국 약 700여곳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의실이 파악한 전국에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 증가세는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종민 의원은 “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나 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까지도 공제조합 설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피크닉매트 만들고, 정수기 설치 호텔업계, '플라스틱 절감' 앞장

롯데호텔 '보틀 투 보틀' 리사이클
객실수거 생수병, 새 페트병 제작

조선호텔엔리조트
페트병으로 '피크닉 매트' 만들어
'마인드풀 스테이' 사은품 제공

위커힐 호텔엔리조트
스위트 객실 90곳에 정수기 설치



롯데호텔 무라벨 생수병. /롯데호텔

호텔업계가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본격 힘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이 페트병 등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세계 플라스틱 전망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파크신(Parkesine)라는 이름으로 19세기 중반에 처음 개발, 1950년대부터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사용량은 230배에 달한다.

특히, 앞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4.6억 톤(2019년 기준)에서 2060년 12.31억 톤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호텔업계들은 페트병 재사용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 절감에 나섰다. 가장 먼저 롯데호텔은 페페트병으로 새로운 생수병을 제작한다. 롯데호텔엔리조트에 따르면 롯데호텔 서울은 폐기물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보틀 투 보틀' 리사이클 방식을 추진해, 자원순환

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보틀 투 보틀'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이 함께 진행하는 ESG 활동이다. 롯데호텔 서울이 객실에서 수거한 무라벨 생수병을 롯데칠성음료 측에 전달하면, 롯데칠성음료가 이를 재수거해 롯데케미칼에 재전달, 롯데케미칼이 업사이클링 공정을 통해 다시 새로운 페트병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시범 시행 이후 총 800kg 이상의 페페트병을 수거했다는 게 롯데호텔엔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페트병으로 매트 제작해 폐자원 활용에 나선 곳도 있다. 조선호텔엔리조트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인드풀 스테이' 패키지를 내놨다. '마인드풀 스테이'는 의미 있는 머무름이라는 뜻으로 지난 조선호텔엔리조트가 지난 2022년 ESG 추진위원회를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ESG 경영을 선포하며 내 건 문구다.

패키지 일환으로 조선호텔엔리조트는 페트병 60여 개로 제작된 리사이클링 제품 '피크닉 매트'를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이번 리사이클링 피크닉 매트를 제작하기 위해 9만6000여 개의 페트병을 수거했다는 게 조선호텔엔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페트병 사용 자체를 중단해 플라스틱 소비 절감에 나선 곳도 있다. 위커힐 호텔엔리조트는 지난 7월 플라스틱 생수병 비치 중단을 그랜드 위커힐 서울과 비스타 위커힐 서울의 90여 개 스위트 객실에 정수기를 설치했다.

위커힐 관계자는 "폐기물 절감과 동시에 고객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정수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워싱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에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및 과대광고를 통해 친환경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환경부 '환경성 표시 및 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 적발 건수가 2023년 493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호강스를 즐긴다고 밝힌 이 모씨는 "그린워싱 문제도 문제지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호텔들의 자원순환 추구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현대백 "K팝·아트 등 디지털 체험하세요"

더현대 서울에 체험매장 '튠' 오픈

더현대 서울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이색적인 체험 매장이 들어서 눈길을 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 6층에 디지털 체험 매장 '튠(TUNE)'을 신규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튠은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그룹 ICT전문 기업 현대퓨처넷과 콘텐츠전문 기업 크리에이티브넷(CRVM)이 협업해 만든 디지털 체험 매장으로, 생성형 AI와 홀로그램 등 미래형 IT 기술을 적용해 K-팝, 엔터테인먼트, 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매장

입구에는 고객의 음성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형 안내 시스템 '힌디 AI 컨시어지'를 설치했다. 생성형 AI가 적용된 고객 점내 시설이나 행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면, 홀로그램으로 제작된 현대백화점 자체 캐릭터 힌디가 적절한 내용의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힌디 AI 컨시어지에 적용된 생성형 AI와 홀로그램은 각각 아마존웹서비스의 아마존 베드락과 크리에이티브넷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매장 내부에는 가로 64m, 세로 38m 규모로 제작된 대형 미디어 아트월도 설치된다. 아트월 상단에는 모션 인식이 가능한 카메라가 부착돼 고객의 움직임을 영상에 담아내는 반응형 미디어도 체험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마트, 올림픽공원서 '와인장터' 운영

'도스코파스 와인' 시음 행사도

이마트가 13일까지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회 슬로우라이프 슬로우 라이브 2024' 페스티벌에 참여해 '와인장터' 부스를 연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와인장터' 부스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와인 시음 및 판매, 게임, SNS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

특히 '빠르기로 브루' 등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와인이 준비된 '와인장터 스테디셀러 판매 부스'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더 프리즈너 레드 블렌

드' 등을 맛볼 수 있는 '와인장터 베스트셀러 판매 부스'가 눈에 띈다. 지난 9월까지 누적 판매량 600만병을 달성한 '도스코파스 와인'을 무료로 맛 볼 수 있는 시음 행사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스티커와 윈도 마카로 와인잔을 꾸밀 수 있는 '잔 꾸미기' 체험과 와인 코르크 마개를 오크통에 끼인 시키는 '슛~코르크!' 게임도 준비돼 있다.

이마트는 이번 '와인장터' 부스로 2030 세대에게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홍보하고, 추후 더 많은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롯데온, 열흘간 '쇼핑 페스타'

최대 9만 명에 '할인 혜택' 기획
매일 20시~24시 '월클딜' 진행
1만1000원 '럭키박스' 할인판매

롯데온이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에 걸쳐 '롯데온 세상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롯데 온 세상 쇼핑 페스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연례 행사로 롯데온 입점 업체와 함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입점 브랜드가 참여해 대대위 할인과 적립 혜택으로 제공한다.

행사는 최대 9만명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게 롯데온 측의 설명이다.

먼저, 롯데온은 롯데 패밀리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멤버스를 비롯해 롯데리아와 세븐일레븐, 롯데시네마와 롯데월드,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까지 '롯데온세상 쇼핑페스타'를 통해 다양한 할인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사 참여도 가능하다. 롯데온 앱(APP)에서는 14

일부터 23일까지 매일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동안 '월클딜(월드클래스 타임딜)'을 진행한다.

특히 이달 14일과 21일에는 롯데온이 제작한 럭키박스를 1만1000원에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한다. '월클딜' 행사도 준비됐다. 롯데닷컴에서 사용 가능한 롯데리아 한우불고기 버거 세트 50% 할인쿠폰을 선착순 4만 명에게 발급하며, 세븐일레븐 1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최대 20% 할인가에 3만명에게 판매한다.

여기에 롯데시네마 관람권 5000장, 롯데칠성/주류의 클라우드 클리어 2500세트, 롯데GRS 모바일 1만원 상품권 1000장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입장권 500매도 할인 판매로 제공된다. 행사는 이달 14일부터 23일, 20시에서 24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롯데온은 기본 할인 외에도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한 옐포인트를 쇼핑 지원금으로 증정함과 동시에 쇼핑 LIVE 방송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홈플러스 단골매장정보 '한눈에' 마이홈플러스 앱 개편

홈플러스가 오는 14일 오전 6시부터 자사 멤버십 '마이홈플러스' 앱을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골 매장' 중심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멤버십 앱과 오프라인 매장의 연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워진 마이홈플러스 앱은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고객이 단골 매장 정보와 보유 혜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마이홈플러스 앱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설정한 단골 매장의 영업 시간, 휴무일 등 운영 정보와 맞춤형 행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매장의 전단 행사나 이벤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보다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받는다.

또한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단골 매장을 추천하고, 해당 매장에 대한 맞춤 쇼핑 정보를 안내해 준다.

/최빛나 기자



모델들이 스타벅스 수능 기프트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수험생 선전기원 상품 출시

클로버 샌드 쿠키·보온병 등 선배

스타벅스코리아는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활용한 푸드와 실용성을 높인 MD 등 다양한 수능 기프트 상품을 14일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16일 온라인 채널에 각각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14일부터 클로버 쿠키 카드·클로버 베이리 쿠키 카드·클로버 샌드 쿠키를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출시한다.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이색적인 카드 패키지의 '클로버 쿠키 카드'와 '클로버 베이리 쿠키 카드'에는 각각 행운을 뜻하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쿠키와 네

잎클로버를 들고 있는 베어리스타 쿠키가 들어있다.

'클로버 샌드 쿠키'는 버터 카라멜과 다크 카라멜 두 가지 맛의 네잎클로버 샌드 쿠키 16개를 행운의 박스에 담았으며 16일부터는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실용성을 높인 보온도시락 2종과 각인 보온병 3종, 키체인 등 수능 MD도 온라인 채널 단독으로 선보인다.

14일 오전 11시에 SSG닷컴의 라이브 쇼핑을 통해 최초 공개한 후 16일부터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삼일제약, '안질환' 나노 신약으로 글로벌 강자 입지 굳힌다

CDMO 사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
APP 13007 위탁생산 계약 체결
베트남 공장서 생산, 해외 시장 공급

삼일제약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매출 개선, 연구개발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13일 삼일제약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CPHI 2024)'에서 삼일제약 베트남 법인과의 대만 바이오테크 기업 포모사파마 슈티컬스는 'APP 13007' 위탁생산(CMO)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대만 포모사가 개발한 'APP 13007'은 안과용 나노 현탁액으로, 안과 수술 환자에게 쓰이는 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에 최초로 나노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포모사는 올해 3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APP 13007에 대해 '안과 수술 후 통증 및 염증 완화'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포모사는 다수



삼일제약 베트남 법인의 글로벌 점안제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 전경. /삼일제약

의 위탁생산 업체들과 글로벌 공급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APP 13007은 삼일제약 베트남 S1 플랜트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공급될 예정이다. 상업용 배치 생산이 완료되면 양사는 향후 5년 동안 2000만달러(약 27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APP 13007의 한국 및 베트남 내 판매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삼일제약은 이번 성과를 통해 베트남

시설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시설은 지난 2022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공단'에 생산동 3층, 사무동 4층 규모로 준공됐다. 현재 3개 생산라인을 갖춰 연간 최대 6000억원 수준의 약 3억3000개 점안제를 생산할 수 있는데, 5개 라인을 추가 증설해 총 8개 라인으로 확장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베트남 의약품청(DAV)으로부터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GMP 인증 절차를 밟는 등 2026년 말까지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cGMP, 유럽 의약품청(EMA)의 EU GMP 등을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일제약은 베트남 현지 시설을 글로벌 생산 기지로 삼고,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025년 베트남 점안제 공장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수주에 초석을 놓은 삼일제약은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액 1086억원, 영업이익 72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42.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삼일제약은 올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독점 판매해 출시 첫 달에만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안과 질환 제품

뿐만 아니라 삼일제약 주요 품목인 '리박트', '리비디' 등 기존 전문의약품 제품군의 매출도 지속 성장했다는 것이 삼일제약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삼일제약은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개광 신약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로어시비린트',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신약 '아람콜' 등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앞서 지난 2021년 3월 로어시비린트에 대한 국내 허가 및 판매 독점 권리를 확보했는데, 2022년 기준 국내 골관절염 환자 수는 400만명 이상으로, 로어시비린트 대상 환자는 250~3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로어시비린트가 삼일제약 실적 개선을 이끌 핵심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삼일제약 측의 설명이다.

또 아람콜의 경우 국내 판권은 국내 최초 발매 후 삼일제약이 20년간 보유하게 된다. 다만 현재는 두 제품 모두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룰루레몬 “‘웰빙 번아웃’ 극복, 함께 움직이세요”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요’ 캠페인
APAC 외신기자 등 100여명 참석

지난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K팝 광장에서는 룰루레몬의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요' 오프라인 캠페인이 진행돼 웰빙(Wellbeing)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캠페인에는 홍콩 엘르·에스콰이어, 일본 보그·WWD, 대만 GQ, 뉴질랜드 맨즈 헬스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APAC)의 외신기자들을 포함해 국내외 60여개 언론 매체, 룰루레몬 앰배서더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붐볐다. 룰루레몬과 강남구청 주최로 열린 이



(왼쪽부터)지안 파블리코 브랜드·프로덕트 디렉터, 케리 마르티네즈 룰루레몬 홍콩 공항 스토어 매니저, 크리스타 리 룰루레몬 러닝·리더십 파트너가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번 캠페인은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룰루레몬 오프라인 행사로, 그룹 액티비티를 통해 함께 웰빙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나아가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환영사는 지안 파블리코 브랜드·프로덕트 디렉터, 케리 마르티네즈 룰루레몬 홍콩 공항 스토어 매니저, 크리스

타 리 룰루레몬 러닝·리더십 파트너가 진행했다.

케리 마르티네즈 매니저는 “룰루레몬은 상하이·뉴욕·서울·한국 등 전세계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날 캠페인에 관해 설명했다.

룰루레몬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호주·뉴질랜드·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한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 15개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차원의 웰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웰빙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김광원 한국당노협회장(왼쪽)과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당노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당노 환자의 삶 개선”

유한양행이 지난 11일 한국당노협회와 '당노인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한양행은 한국당노협회 공식 후원 업체로서, 혈당 유산균 당류락을 내세운 당화혈색소 인지 캠페인을 펼치고 당노인 및 일반 대중의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지원한다.

유한양행은 한국당노협회와 함께 당뇨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 콘텐츠를 발행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붉은 주름부터 승모근 피부 유연함까지”

중근당건강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중근당건강의 피부건강기능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런티드는 '레티노콜라겐 저분자300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중근당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팔사 목주름크림으로, 기존 '레티노콜라겐 팔사 목주름크림' 대비 콜라겐과 레티날 성분이 2배 더 강화됐다. 또 브랜드 독자 성분인 '필톡 포몰라'를 함유하고 있다.

'레티노콜라겐 저분자300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은 목주름 관리에 효과를 갖췄다는 것이 중근당건강 측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목 부위 가로 주름, 세로 주름을 비롯한 붉은 주름부터 승모근 부위 피부 유연함까지 한 번에 관리해 준다. 아울러 붓기 완화, 혈행 개선, 보습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파



씨케이디 개런티드 '레티노콜라겐 저분자300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중근당건강

사지 제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중근당건강은 팔사 뷰티 제품군을 꾸준히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오렌지맛 비타민 젤리로 간편한 에너지 충전

동아제약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

동아제약이 신제품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을 전국 CU편의점에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비타민C를 함유한 젤리다. 1포당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의 비타민C와 비타민E 100%, 아연 30%를 함유해 종합적인 영양 보충이 가능하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아침 출근이나 등교 시, 장거리 이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해 비타민C 보충이 필요할 때 등 일상에서 섭취하기 적합하다는 것이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 /동아제약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은 오렌지 과즙이 터지는 쫄쫄한 질감도 특징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4년 비타민C 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을 공개한 후 현재까지 분말, 정제, 츄어블, 구미젤리, 팝핑캔디 등 다양한 제형과 맛을 선보이고 있다. /이청하 기자

이랜드파크 컨싱턴호텔앤리조트 '올 어바웃 바비큐' 기획전

이랜드파크의 컨싱턴호텔앤리조트는 캠핑하기 좋은 가을 날씨를 맞아 각 지점별 특색있는 바비큐 상품이 포함된 '올 어바웃 바비큐' 기획전을 내달 20일까지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각 지점은 아름다운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뷰 맛집 바비큐', 객실 내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바비큐,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팸(Pet+Fam ily)족 바비큐' 등 지점별 콘셉트를 반영한 패키지를 출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Ria's BURGER ART MUSEUM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33

2024.10.03-10.20

LOTTERIA™



스타키스트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만찬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참전 용사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원그룹, 참전용사 초청 만찬

美 자회사 스타키스트 만찬 개최
“참전용사 봉사과 희생에 깊은 감사”

동원그룹은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힐튼 알링턴 내셔널 랜딩(Hilton Arlington National Landng)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 15명과 가족, 최영조 스타키스트 대표, 워렌 위드한(Warren H. Wiedhahn) 장진호 전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은 지난 1950년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 육군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벌인 전투를 뜻한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2008년 동원그룹에 인수된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의 봉사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해마다 만찬 행사를 열고 있다.

최영조 스타키스트 대표는 “두 나라의 자유를 위해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용기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봉사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워렌 위드한 장진호전투협회장은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인정해주고 매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동원그룹과 스타키스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솔제지, 플라스틱 대체 제품·기술 선보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프로테고, 테라바스 등 전시

한솔제지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참가했다.

13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올해로 21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다.

박람회에서 한솔제지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과 기술 등을 소개했다.

특히, 부스를 ‘한솔 친환경 종이연구소’라는 콘셉트로 꾸미고 방문객들이 종이제품의 원료에서부터 후가공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보였다.

또한 ▲멸균팩을 재활용한 백판지 제품 ▲기존 플라스틱, 비닐,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연포장재 프로테고(Protego) ▲PE-Free 코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코팅지 테라바스(Terravas) 등 한솔제지의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전시하고 방문객 대상 현장 상담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농협은행, 'FIBA 3x3 흥천무궁화 챌린저 2024' 개막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강원도 홍천군 흥천종합운동장 특설코트에서 'FIBA 3x3 흥천무궁화 챌린저 2024'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메인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농구대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흥천종합운동장 특설코트에서 열린다. 세계 20개국 1500여 명의 선수들이 8개 부문에서 승부를 가릴 예정이다.

/농협은행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팔레트' 부산 지역 확대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재단 희망스튜디오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 커뮤니티 '팔레트'를 부산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왼쪽부터) 희망스튜디오 박재희 팀장, 김영 이상찬 대표, 희망스쿨 최슬아 센터장이 지난 11일 부산 희망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KT,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초대드림 캠핑' 성료

KT가 지난 11일부터 강원도 횡성군 KT 전용캠핑장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초대드림 캠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KT는 이번 행사에서 AI 식당을 운영하고, '코파일럿 생성형 이미지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 AI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KT



시몬스, '뷰티레스트 100주년' 팝업스토어 운영

시몬스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에 위치한 오픈 스테이지에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팝업스토어는 ▲열차 대합실 ▲열차 침대칸 ▲열차 식당칸을 콘셉트로 꾸며졌다.

/시몬스



원광디지털대-사회서비스전문가협, 업무협약 체결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2일 서울캠пус에서 사회서비스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는 사전협 소속 기관장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원광대



삼육대, 간호대 개설 50주년 기념식

삼육대학교 간호대학이 개설 50주년을 맞아 10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육간호 50년, 비상하는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간호대학의 발전과 그간의 성취를 기념했다.

/삼육대

서울시, 18일 '한양도성 달빛야행' 행사

서울문화포털 누리집 선착순 접수

서울시는 이달 18~19일 '2024 한양도성 달빛야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도성 수비대가 돼 과거의 비밀을 푸는 현장 참여형 미션 투어로 운영된다. 올해 한양도성 달빛야행은 삼군영(훈련도감, 어영청, 금유영)의 정에 요원이 되기 위한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코웨이,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코웨이가 브랜드가치평가회사 브랜드스타이 발표한 올해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13일 코웨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특히 받은 브랜드가치 평가 모델 BSTI(Brand Stock Top Index)를 기반으로 국내 230여 개 주요 산업 부문의

1000여 개 브랜드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다.

코웨이는 이번 조사에서 BSTI 총 862.5점(1000점 만점)을 얻으며 전년 동기 순위보다 2계단 상승한 30위를 기록, 정수기 부문에서 최고 순위를 달성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김승호 기자

부음

▲김순덕씨 별세, 고광훈(전 대전지방법노동청장)·광명(중증장애인 거주시설가운 원장)·정임(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 담당관 사무관)·정아(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고건(경인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13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31-382-5004

▲김수정(향년 88세)씨 별세, 유신열(신세계메디에프 대표이사)씨 모친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허재구(전 서울 용산구청장)씨 별세, 허윤석(SBS 보도본부 뉴스브리핑부장)·윤실 씨 부친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5일.

거래소, 'KRX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금융 특화 LLM 성능 평가

한국거래소가 '제3회 KRX 데이터 경진대회(금융LLM 성능평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사용을 활성화하고 거래소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함이다.

대회는 거래소가 만든 자체 벤치마크를 활용해 금융에 특화된 거대 언어모델(LLM)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앞서 거래소는 원라인AI와 함께 금융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KRX-Bench 개발을 완료했다.

거래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코스콤이 주관사로, 원라인AI가 대회 운영사로 참여한다.

거래소는 이번 대회가 KRX 미래사업본부 출범과 연계해 AI 기술을 기반

으로 한 KRX 비즈니스 역량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회 참가자는 오픈소스 언어 모델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에 특화된 LLM을 개발하고 대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거래소가 자체 벤치마크로 LLM의 성능을 평가한다. 거래소 자체 벤치마크인 'KRX-Bench'는 LLM의 ▲지식수준(Knowledge) ▲추론 능력(Reasoning) ▲충실도(Faithfulness)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대회는 일반 데이터 경진대회와 달리, LLM 학습·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GPU)과 LLM 개발 도구를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자에게 LLM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능력을 배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카카오 "소상공인 성공담 공유해주세요"

'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 개최

카카오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성장 스토리 공모전 '2024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는 카카오통을 활용한 소상공인들의 성공담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다.

카카오통 채널, 카카오토먼트 등

카카오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오는 11월 10일까지 카카오통 비즈니스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어워즈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 22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12월 12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26팀 총 30팀을 선정하고, 총상금 2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 캐시를 지급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2

2024 제약·바이오 포럼

2024. 10. 23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기조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운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공사비 증액과 총회 의사정족수 가중 의미



**여지운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정족수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을, 의사정족수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3항). 그러나 조합원 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의사정족수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의 중요한 절차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해 의사정족수를 가중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이 경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의사정족수를 한층 더 가중했습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

최근 위 규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자 2023카합2043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21.자 2024라20299 결정, 대법원 2024. 8. 29.자 2024마6538 결정).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서' 체결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의 정족수가 중규정은 그 문언과 취지상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는 개개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와 관련된 결의'를 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 그 자체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가중하는 규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

경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인가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될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경계약에 해당하는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신청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무효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그러나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요한 이유로 들어 사전에 공사비 검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졌다고 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흑백요리사 인기에 선 넘는 웃돈거래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흑백요리사)'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외식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웃돈 거래가 성행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셰프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식당과 협업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연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출연자들의 식당에 대한 검색량은 직전주 대비 74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흑백요리사'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셰프의 식당 예약에는 1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며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권 셰프와 협업한 신제품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했다. 편의점 CU는 권 셰프가 프로그램 속 경연에서 선보인 '밤티라미수'를 선보였다. 편의점 판매가는 4900원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

람들로 품절상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개당 1만원에 판매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흑백요리사'의 과급효과가 침체한 외식·유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압도적 거래와 인기 상품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까지 등장하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리셀'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별다른 묘수가 없지만, 이러한 행태가 올바른 소비문화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또 지금의 신드롬급 인기가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음 9월 1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식에게 양보해서 않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질 것. **48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한 날. **60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떠들지 말고 침묵해야. **72년생** 사람에게도 각각 색깔이 있기 마련. **84년생** 매일 같은 지루함이 무력으로.



37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49년생** 후천운에서 재물의 보답을 받는다. **61년생** 형제와 투자 관계로 인해 곤경에 빠진다. **73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을. **85년생** 가족 중 부자가 있기 마련.



38년생 받기만 하지 말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50년생** 건강이 열려되면 먹는 것에 주의하고 운동. **62년생** 조심성 있게 행동하려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다. **74년생** 비단옷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면. **86년생** 하나를 두고 양보할 수 없는 상황.



39년생 동봉서주해서 이익이 커진다. **51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못지않게 극복된다. **63년생** 새로운 것만 찾다가 크고차질 일이 생긴다. **75년생** 정치적인 연정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어려우니 아예 침묵하라. **87년생** 기회는 오지만 판단력이 필요.



40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처량. **52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신중. **64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겐 고통. **76년생** 내용보다 포장에 중요할 때도 있다. **88년생** 오늘은 귀한 대접받는 날.



41년생 내가 좋다고 머느리도 좋아하는 건 아니다. **53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65년생** 허투르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77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해야. **89년생** 말 없는 말이 천 리 가니.



42년생 타인의 결점을 폭로하면 인연이 대가가 따르다. **54년생**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66년생** 여름이 갔으니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78년생** 주어진 현실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 **90년생** 술선수범이 기회를 준다.



43년생 철쭉같이 어두우니 곧 새벽이 오겠다. **55년생** 된다 된다 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67년생** 된다 안 된다는 정확한 의사 표현이 상대에게도 도움이이다. **79년생** 매력적인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독성. **91년생** 오늘과 내일은 다른 날이거늘.



44년생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56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68년생** 부모님 재산이 있음을 과시하다가 가난을 면치 못한다. **80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 성실하고 노력을. **92년생** 모래성을 쌓게 되니.



45년생 못지 않고 보낸 날은 의미 없는 날. **57년생** 내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69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81년생** 말이 싸가 된다는 말이 뜻이 비판적인 말은 삼가야. **93년생** 때가 들면 물러나게 되는 이치.



46년생 이사 한곳에서 행복한 날을 보낸다. **58년생** 일의 열정이 있다면 번 성공할 것. **70년생** 말에 김을 매지 않으면 접촉은 무성해지기 마련. **82년생** 단단한 나무라야 조각할 수 있으니 공부로 해나기. **94년생** 여행은 뜻밖의 행운이 있다.



47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59년생** 오후에 착한 친구를 만나 지혜가 생기고 일도 풀린다. **71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83년생** 생 인정은 변화기 쉬우니 이성 관계 유의. **95년생**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실행을.



**김상회의四季
절기, 그 시절 인연**

선조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평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미묘한 진리가 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지견이 들은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한다. 철이 들지 않으면 천방지축여서 하는 일마다 경거망동이고, 실패가 많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 민폐 그 자체가 된다. 때를 잘 아는 것에 있어 절기는 곧 그 지표다. 실생활에의 응용도 절기만 한 참고치를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한 경험의 축적은 바로 관습과 풍속이 되고 문명을 이루게 했다. 인류 문화의 궤적이 된 것이다.

천지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의 조화가 있고 인간들의 삶 역시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길흉화복(吉凶禍福)의 명운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절기의 변화와 기운에서도 참고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로부터도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천지자연의 조화를 대변하는 절기로부터 이기도 했다. 사람의 인의(仁義) 마음 씀드 가까운 머리 위 하늘과 발을 딛고 있는 땅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았다. 그래서 그토록 갈망하는 부귀도 역시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 정도로 천지 자연을 두렵고 어렵게 알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분명 다시 시작되는 순환의 이치를 믿었다. 마치 절기가 또 찾아오고 반복되듯이, 그래서 지금은 불운해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천지가 순환되듯 그 이치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았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은 누가 뭐래도 강태공이다. 지략(智略)에 뛰어난 강태공은 위수에서 낚시대나 드리우고 있다가 그 낚시물만 보낸 것이 아니었고 시운(時運)이 다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지자연에서 배우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구출

스도쿠 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9x9의 열대퍼즐 증가팩으로
http://www.argo9.com

문제를 풀면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창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2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병원, 채용 때 성차별 '여전'... 10명 중 1명은 성범죄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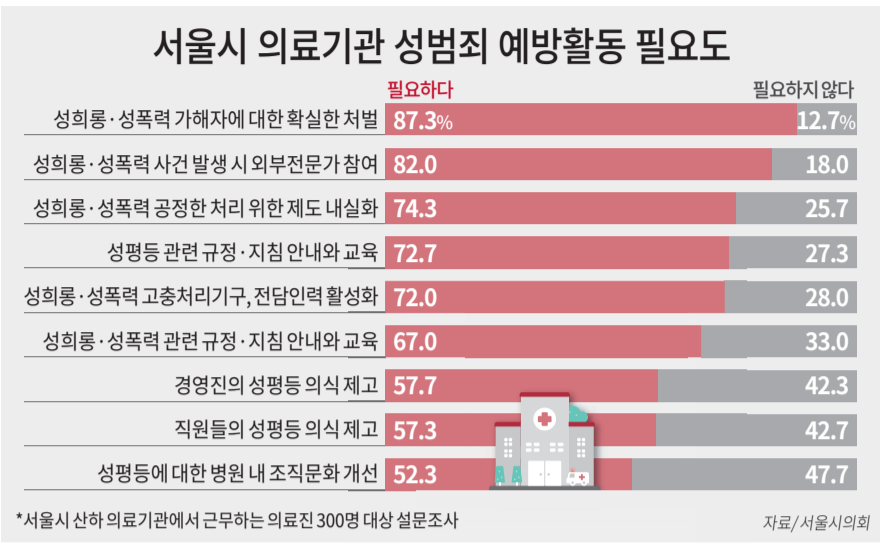
서울시의회, 성인지 감수성 설문

10.3% "직무 부여 시 성별 영향 있어" 고위 행정업무 등에 남성 선호 경향

의료진 성범죄 가해자, 76.5% 환자 예방 위해 가해자 확실한 처벌 '절실'

#1. "신규 레지던트를 뽑을 때 여자들이 성적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성비를 맞춰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남자만 혹은 여자 조금'은 되지만 '여자만 혹은 남자 조금' 이런 식으로는 뽑지 않는 거죠. 특히 젊은 여성을 선발할 때 이 여성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임신하면 업무적으로 배려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2.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인정받는 수준이 다르지 그런 게 여자 대비 남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뭘 좀 일을 잘못하면 '저 사람은 애가 있어서', 아니면 '아줌마라서' 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반면 남자 직원에게는 '년 남자라서 뭔가 준비가 돼 있다.', '남자라서 책임감이 역시 다르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3.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 간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간호사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해요. 의사는 당당하게 병원 다니고, (중략) 피해자는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해결하려면

고충 처리 기구에 내부 직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인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나, 서울 소재 일부 병원들

에서는 전공의 채용과 고위 행정 업무에 남성을 선호하는 등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 열에 하나는 성희롱·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1~24일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료인 성인지 감수성 관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10.3%가 '직무 부여 시 개인의 업무 역량보다는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인사 제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평등 수준을 조사한 결과 ▲고위 행정업무(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5.3%) ▲경력비슷해도 여성보다 남성의 승진이 빠른 편이다(12.3%) ▲전문적인 직무에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1.7%)는 응답이 나왔다. 또 ▲상급자(인사권자)는 여성보다 남성과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거나 편하게 여긴다

(11.3%) ▲여성보다 남성이 근무 평점이나 업적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서/업무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10%)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채용이나 승진에서의 성차별 외에 실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1년간 병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1.3%로 조사됐다. 의료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76.5%는 환자였다. 상급자(20.6%), 환자 보호자(17.6%), 동료·하급자(5.9%)가 뒤를 이었다.

의료인들은 병원 내 성평등 실현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87.3%),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 참여'(8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제도 내실화'(74.3%), '성평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교육'(72.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韓 최대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열린다

오는 17일~27일까지 DDP서 열려 '내일을 상상하다' 주제로 전시 선포

밀라노, 런던 등 세계 우수 도시에서 개최하는 디자인 워크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최대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2024'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시내 곳곳에서 AI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디자인 2024'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를 주제로 아티스트, 디자이너, 소상공인, 기업과 함께 전시, 마켓, 콘퍼런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제전을 기획한 미디어 아티스트 강



이연작가는 AI와 인류의 공진화를 다룬다. '다이어리'라는 작품으로 풀려난다. 기업 전시&팝업은 다양한 '디딩기업'을 한 곳에서 만나는 트렌드 전시로 DDP 어울림광장에서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SM엔터테인먼트, LG 유플러스, 레코드를 포함 14개 기업이 준비한 전시와 이벤트, 인터랙티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오는 23~26일에는 디자인 콘퍼런스

가 진행된다. 한국의 대표 트렌드 분석가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CAO, 조승연 작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이 연사로 나선다. 이번 콘퍼런스는 최신 디자인 트렌드, 미래 시대에 대한 방향성, AI를 활용한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 의 장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시 외에 어울림광장과 미래로, 팔거리에서는 디자인 마켓이 운영된다. 재능 넘치는 소상공인들의 디자인 소품, ESG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디자인 전시와 콘퍼런스 입장권은 유료이며, 네이버에서 예매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경기북부 최초 선정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곡동 등 고양시 일대 총 125만㎡에 걸쳐 있으며, 이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 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산업이 밀집한 곳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 면제와 정부의 경영·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 추가 감면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고양시의 경제자

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 및 기업 경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800억 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와 100억 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 4차 산업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는 기업들이 입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경제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亞 최대 규모 테마파크 도입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 '파라마운트'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문화산업 중심으로 동쪽에 에버랜드, 서쪽에 테마파크를 우뚝 세우고 싶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해안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17년 갈증을 이번엔 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2040년까지 총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포함한 서부 개발 비전을 담은 경기서부 SOC 대개발 발표를 했다. 화성시는 서부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다. 테마파크조성이 성공적인 대개발을 견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됨에 따라 신세계화성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미디어 기업이다. /화성(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9 | 해질 / 17:56

10월 14일 (월)
음력 : 9월 12일

수도권 날씨
17~24°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4/23, 동두천 15/23, 가평 13/22, 파주 14/23, 서울 17/24, 양평 15/22, 인천 18/23, 수원 17/23, 용인 17/23, 평택 16/24, 백령도 18/2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녹색기후기금 첫 한국인 국장 부임... 14일 근무 시작 /사진 뉴시스
▲ 레바논 유엔군 부상자 5명으로 늘어... "이스라엘 철수 요구 거부"

▲ 이란 유엔대표부, "이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무관"
▲ 코스타리카 태평양 근해서 규모 6.2 강진 발생



▲ "50년 만에 처음" 기상청도 놀랐다... 폭우로 물바다된 사하라 사막
▲ 주영한국문화원, 노벨문학상 한강 특별 코너 마련 /사진 뉴시스



호텔업계
플라스틱 절감
자원순환 앞장
L1



Life

삼일제약
나노 신약으로
글로벌 입지 굳힌다
L2



“인력난 심각한 제조업… 지원제도 개선으로 악순환 끊어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주)한양기계 장미숙 실장

“현재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회사가 반드시 그들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일이 계속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설 플랜트(크락사) 제작 프렌트 전문회사인 (주)한양기계 장미숙 실장의 말이다. 그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면 그들은 기술을 배운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소 역할만 수행하게 되니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강조했다.



“

30년 업력 갖춘 플랜트 회사지만 인력난 심각
국내인력 빨리 떠나고, 외국인 채용도 힘들어
단순 업무에도 고임금… 현장 운영 부담 가중

정부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 안돼
지원받던 기업만 받는 구조… 제도개선 필요
힘든 상황에도 걱정 대신 긍정적 마음 가져야

장미숙 (주)한양기계 실장이 회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주)한양기계 공장 모습. 산업 기계, 크락사 등이 위치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 1길에 위치한 (주)한양기계는 산업 기계 프렌트, 크락사 제작,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제작·설치, 밀링 가공 등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력 사업인 크락사는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쇠석해 재사용 가능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돼 있다.

장미숙 실장은 “회사가 3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차라리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업무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근하곤 한다”면서 “출근 후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간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고, 퇴근 준비는 10분 전부터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용역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 18만원에 고용하고 있다. 한 달에 약 43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용역이지만 정직원처럼 대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을 쓸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당이 14만원부터 시작한다. 청소와 페인트칠 등 단순 업무를 해도 고임금을 받는다”라며 “현장 상황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상황이다. 임금이 낮아지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남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체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제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거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복지 수준’이 85.8%,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가 4.0%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수급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5.5%로 1순위였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이 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가 14.9%,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10.9%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구조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정부 지원 클린 제조 사업을 통해 고소작업대 보조지원금을 받았지만, 공단이 인정하는 고소작업대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어디선가 금액이 부풀려져 비싸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70%를 지원받겠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금액에 부담감을 느낀다. 절반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짜로 주지 않는 정책자금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기업만 계속 받는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걱정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내고 고민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재의 위치와 환경, 조건에 맞춰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세월 흐르는 대로 살자. 고민해 봤자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5년4개월 만에 태극마크 단 이승우, 홍명보 감독 눈도장 받을까
▲‘호날두 A매치 133호골’ 포르투갈, 폴란드에 3-1 승리 /사진 뉴시스

▲‘노벨문학상’ 한강, 가요계에도 영향력…약무 역주행·흰 재조명
▲‘K-문학 세계화 박차’…김윤덕 의원,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법안 발의



▲서옥태훈, 통산 5번째 출신원 성공…KPGA 투어 역대 최다
▲한강 작가 책, 교보문고서 판매량 910배 증가 /사진 뉴시스